벤치서 180분 '이강忍'

이강인

한국축구 '뜨거운 감자' 이강인

카타르 월드컵 개막 2개월 앞
코스타리카·카메룬과 평가전
벤투 감독, 1분도 기회 안 줘
전문가들 "재능 차고 넘치는데…"
팬들 "안 쓸거면 왜 불렀냐"
월드컵 최종 엔트리 뽑힐까 관심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채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골든보이' 이강인(마요르카)이 한국 축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강인은 9월 A매치를 앞두고 발표된 축구대표팀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3월 일본과 평가전(0-3 패) 이후 1년 6개월 만의 발탁이었다.

그러나 파울루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뽑고도 9월 두 차례 평가전(코스타리카·카메룬)에서 단 1분도 뛸 기회를 안 줬다.

이강인은 올 시즌 세계 3대 빅리그로 꼽히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1골 3도움)를 올리며 물오른 기량을 보여준 터라 그의 벤치 대기는 팬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

벤투 감독은 이번 소집 기간 훈련에서 이강인의 여러 활용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인은 비공개 연습경기에서 공격포인트를 여러 개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벤투 감독은 끝내 외면했다. '180분' 동안 벤치에만 앉아있던 이강인의 표정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강인의 '천재성'에 큰 기대를 품는 팬들은 '안 쓸거면 왜 불렀느냐'며 벤투 감독을 비난하고 있다.

◇이미 굳어진 벤투호 플랜A…자리가 좁다

벤투호 공격의 중심축은 '중원의 지휘자'로 손꼽히는 황인범(올림피아코스)이다.

'큰' 정우영(알사드)이나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수비라인의 1차 저지선 역할을 하고, 그 앞에서 황인범이 빠른 템포로 전방 공격수들에게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는 게 벤투 축구의 밑그림이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분류되는 이강인의 역할은 황인범과 많이 겹친다. 황인범 대신 이강인을 선발로 내세우는 전술을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둘의 공존도 어렵다. 벤투 감독은 활동량이 많은 '작은'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이나 이재성(마인츠)을 황인범 옆에 세워 2선의 공수 밸런스를 맞춘다.

이강인은 이 역할을 맡기에는 활동량이 부족하다. 창의적인 패스가 강점인 이강인의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기도 하다.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난감할 법도 하다. 만약 이강인이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라도 소속팀에서 지금의 경기력을 보여줬다면 '그림'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기본 전술에서 이강인을 활용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교체 요원으로서의 활용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강인은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궤적의 패스 하나로 한 번에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 출중하고, 이 능력을 '라리가'에서 입증해왔다.

한국 대표팀의 '특급 조커'로서, 이강인의 재능은 차고 넘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축구인들 "여론이 오히려 이강인 발목 잡아"

'지금이라도 이강인을 써야 한다'는 여론이 오히려 이강인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국가대표 생활을 오래 한 한 축구인은 "카메룬전 분위기에서 이강인을 투입하면 감독이 여론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다른 선수들에게 줄 수 있다"면서 "벤투 감독은 아예 여론에 강력하게 저항해 팀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선택을 했다. '이 팀은 내가 100% 통제한다'는 사인을 준 셈"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경기 뒤 손흥민이 한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벤투호의 '캡틴' 손흥민은 경기 뒤 믹스트존에서 "이강인이 정말 좋은 선수고 리그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대표팀은)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감독님도 그런 결정을 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강인은 '카타르 월드컵' 최종엔트리에 뽑힐 수 있을까

이제 남은 관심사는 벤투 감독이 과연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이강인을 포함할지 여부다.

실전에서 제대로 쓰지 않은 필드 플레이어를 월드컵 본선에 데려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본선 엔트리가 23명에서 26명으로 늘었지만, 여기에 이강인의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는 이유다.

아직 월드컵 개막은 2개월 정도 남아있다. 이강인의 카타르행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소속팀에서 꾸준하게 좋은 경기력을 보인다면 벤투 감독의 최종 선택을 받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

27·28일 경기 없이 쉬어간 KIA가 29일 롯데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총력전에 들어간다. 사진은 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정해영(오른쪽)등 투수들이 수비 훈련을 하는 모습.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마운드 '좌4 라인' 총력전 준비

오늘 롯데·10월 1일 SSG·2일 한화·3일 LG 4연전
파노니·양현종·션 놀린·이의리 나란히 선발 출격
김기훈·이의리·정해영 타이거즈 미래들 전면에 나서

KIA 타이거즈 마운드 미래들이 첫 '가을 잔치'를 위한 막판 스퍼트 전면에 선다.

20·21일 경기 없이 훈련을 소화했던 KIA가 29일 롯데 자이언츠와 챔피언스필드에서 시즌 16차전을 벌인다.

KIA는 지난주 6위 NC 다이노스와 '운명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5위 싸움의 유리한 고지에 섰다.

이번 주 일정도 KIA에 유리하다.

NC는 이번 주 6경기를 모두 뛴 뒤 10월 3일 월요일 경기까지 7연전을 소화해야 한다.

KIA는 29일 롯데전, 10월 1일 광주 SSG전, 10월 2일 대전 한화전을 앞두고 있다. 10월 3일 LG와의 월요일 경기까지 소화하면 사실상 4연전이지만 NC에 비해 한결 여유 있게 승부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이다.

긴장감 가득했던 NC와의 맞대결 이후 삼성전 승리까지 기록하면서 KIA 선수단은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29일 롯데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틀 경기 없이 훈련을 진행하면서 지쳐있던 타자들도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이범호 타격 코치가 "최형우, 나성범, 김선빈 등 베테랑들의 방망이 돌아가는 게 다르다"고 웃을 정도로 좋은 휴식이 됐다.

마운드 상황도 좋다. KIA는 마운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월요일까지 4경기를 위해 '좌좌좌좌'라인이 준비됐다. 토마스 파노니를 시작으로 양현종, 션 놀린, 이의리가 나란히 선발로 출격할 예정이다.

LG 잠실전 선발을 준비하는 이의리는 롯데전에서는 불펜으로도 대기할 예정이다.

NC와의 경기가 열린 지난 23일 1사 만루의 긴장감 가득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데뷔전을 치른 '예비역' 좌완 김기훈도 KIA의 5강 굳히기에 힘을 보탤 생각이다.

김기훈은 "(복귀전이) 편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준비한 만큼 던지려고 했다. 너무 긴장됐다. 긴장 많이 했는데 티 안 내려고 했다. 좀 더 준비해서 차분하게 경기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4일 NC전에서 세 타자 연속 볼넷 뒤 세 타자 연속 탈삼진쇼를 펼치면서 6이닝 무실점으로 9승을 채운 이의리는 "스트라이를 잘 던지겠다"며 5위 확정에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의리는 NC전 무사 만루 상황에 대해 "경기장에 있던 1만7000명 중 단 한 명도 나를 안 믿었을 것이다(웃음). NC 타선이 좋아서 나도 막을 생각은 못 했다"면서도 "변화구를 많이 던지면서 효율적으로 승부했던 것 같다. 빠른 템포로 상대하면서 밸런스가 잘 잡혔다. 올 시즌을 치르면서 한 이닝에 무너진 게 많은데 스트라이크 잘 던지면서 승부하겠다"고 언급했다.

마무리 정해영은 "남은 8경기에 모두 나갈 준비가 끝났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해영은 "이제 8경기 남았는데 언제든 나가고 싶다. 8경기 다할 수 있다. 이 경기들을 치르면 올해가 끝난다"며 "세이브 아닌 상황에서도 필요하면 나가서 무조건 막도록 하겠다"고 프로 첫 '가을 잔치'에 대한 꿈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한빈(왼쪽부터) 두현석 이순민

광주FC 박한빈·두현석·이순민
K리그2 41라운드 베스트 11

광주FC의 K리그2 최다승점 신기록을 합작한 박한빈, 두현석, 이순민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5일 K리그2 41라운드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안산전에서 골을 기록한 박한빈과 두현석 그리고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준 이순민이 명단에 포함됐다

광주는 지난 26일 열린 안산그리너스와의 41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29분 터진 산드로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후반 9분 박한빈, 후반 43분 두현석으로 골로 3-0 승리를 거뒀다.

광주는 우승 확정 뒤 치른 첫 경기에서 승리를 만들며 K리그2 최다승(24승)타이, 최다승점(81점) 신기록을 작성했다.

한편 41라운드 MVP로는 대전하나시티즌의 마사가 선정됐다.

41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5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 FC안양 경기가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스페인 모라타 결승골
네이션스리그 포르투갈 꺾어

한국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상대인 포르투갈이 경기 막판 결승골을 헌납하며 스페인에 무릎을 꿇었다.

포르투갈은 28일 포르투갈 브라가시립경기장에서 열린 2022-2023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리그 2조 6차전에서 후반 43분 알바로 모라타(30·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패했다.

포르투갈과 조 1위를 경쟁하던 스페인(승 2무 1패)은 승점 11을 쌓아 선두로 올라섰다. 포르투갈(3승 1무 2패)은 승점 10에 머물며 조 2위에 랭크됐다.로 처졌다.

네이션스리그 최상위인 리그A에서는 16개국이 4개 조로 나뉘어 경쟁한다. 각 조 1위 4개 팀은 파이널에 진출해 토너먼트로 우승을 다투고, 최하위 팀들은 리그B로 강등된다.

전반 공격을 주도하며 공세를 편 쪽은 홈팀 포르투갈이었다.

후벵 네베스의 중거리슛을 시작으로 슈팅을 퍼부었지만, 골키퍼 우나이 시몬(25·아틀레틱 빌바오)의 '선방 쇼'에 막혀 골문을 열지 못했다.

결국 후반부터 점차 슈팅 수를 늘리며 반격한 스페인이 경기 막판 결승골을 먼저 터뜨렸다.

/연합뉴스